

▶ 고창문화의전당 기획공연... 뮤지컬 '천변카바레' 내일 '흥행' 예고

60~70년대 클럽 음악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사이키델릭 사운드로 세련되게 재구성 뮤지컬적 요소 대폭 강화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창문화의전당 기획공연으로 2010년 서울 두산아트센터 초연 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 창작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쇼뮤지컬로 자리매김한 뮤지컬 '천변카바레'를 22일 오후 7시 30분에 선보인다. 2017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으로 진행되는 뮤지컬 '천변카바레'는 고창군에서 전국 투어공연의 첫 스타트를 끊으며 고창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불멸의 가객, '배호' 그가 돌아온다**
올 11월이면 타계 45주기를 맞는 불멸의 가객 배호. 29세 젊은 나이로 요절했지만 6년간 투병하면서도 '안개 낀 장충단공원', '영시의 이별', '돌아가는 삼각지' 등 300여곡을 발표하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그는, 자신의 밴드를 이끌던 훌륭한 드러머이기도 했다.

'천변카바레'에서는 1960~70년대 급격한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가는 서울의 이면을, 시골에서 상경해 노동자, 웨이터, 불멸의 가객 배호의 모창 가수로 변신하는 주인공 손씨



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주역 속 1960~70년대 클럽음악**
이번 공연은 JK 김동욱에 이은 새로운 주인공 고영빈, 댄스스터즈와 MC, 멀티맨들의 활약, 소울이 있는 록음악을 지향하는 8인조 천변밴드 소울트레인의 사이키델릭(환각적)인 사운드로

1960~70년대 클럽음악을 세련되게 재구성한 뮤지컬적인 요소를 대폭 더했다. 군 관계자는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장을 연 뮤지컬 '천변카바레'는 한국 창작 뮤지컬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천변시리즈 뮤지컬로 한국 근현대 대중음악사를 토대로 그 시대의 사회상, 서민들의 삶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공연

이 될 것이다"라며 "무더위가 시작될 지금 시원한 가창력을 갖춘 배우들과 훌륭한 공연시설을 갖춘 문화의전당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관람은 성인 3,000원, 학생 1,500원이며 고창문화의전당(063-560-8041~2) 현장에서 예매 가능하다. /고창=김영식 기자

극단 명태 '정순', 대한민국 연극제 금상

전라북도 극단 명태(대표 박나래미)의 '정순'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연극제 폐막식에서 금상(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 '정순'(홍자연 작/최경성 연출)은 조선조 단종의 비 정순왕후의 생애와 사랑을 시대적 배경과 결부시켜 여성 작가의 시선으로 세심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한편 35년 전통의 전국 연극제를 이어받은 대한민국연극제는 지난해부터 새롭게 개최되고 있는 대회다. 연극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한국연극협회, 대구광역시 공공 주최하고 (사)대구연극협회 주관해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지역 예선을 거친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팀이 대통령상을 놓고 치열한 경연을 펼쳤다. 대상은 전라남도 극단 파도소리의 '굿모닝씨어터'가 차지했다. /정해은 기자

김정수 전주대 교수, '박동화연극상' 대상 수상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제20회 박동화연극상' 대상 수상자로 김정수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교수(사진)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수 겸 연극인인 김정수 씨는 연극을 비롯해 뮤지컬·오페라·창극 등 다수의 희곡 창작물과 다양한 작품을 연출했으며, 후학양성에 힘써 왔다. 또한 박동화 선생님을 비롯한 희곡연구와 한국현대연극사 연구를 통해 연극과 극예술 분야 등 전북연극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동화연극상은 전북연극의 중흥기를 창출한 박동화 선생의 연극 열정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고인의 작고일(양력 6월 22일)을 전후로 매년 1회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28일 오후 5시 전주체련공원 박동화선생 동상 앞에서 진행된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는 '2017 세계아동청소년연극의 날' 기념식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지난해 1~2위를 차지한 중국대단원팀의 '만중일심' (사진 왼쪽),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Famile de juste팀의 La union.



세계 청소년들의 화합을 위한 춤 경연

29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개최

국제교류활동을 통한 국제적 감각을 갖춘 지도자 양성과 지구촌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2001년에 설립된 범세계적인 청소년 단체이며 국제 NGO 단체인 (사)국제청소년연합(IYF)이 오는 29일에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2017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다. 2012년 시작해 올해 6회를 맞은 '2017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은 지난 5년간 세계의 많은 나라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와 도전의 장을 매해 마련해 왔다. '한국의 꽃시, 전주'에서 3회 연속 개최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전통 문화를 바탕으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각국의 다양

한 문화와 스토리를 댄스를 통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 많은 전주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아 왔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 뜨거운 열기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2017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은 국내·외 청소년 및 교육 문화 관계자들에게 세계 각국의 여러 가지의 문화체험 기회 및 참가국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도전의 꿈을 제공, 국제문화교류를 통한 세계인의 우정과 화합을 위한 축제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 참가팀은 10개국 11개팀(남아프리카공화국, 베냉, 필리핀 2팀, 태국, 한국, 중국, 인도, 미국, 핀란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댄스팀이 참가하며 각 대륙별 치

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에 오르는 만큼 치열한 경쟁과 화려하고 열정적인 축제가 될 전망이다. 시상 내역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12개 부문이다. 작년 제5회 대회(2016)에는 총 11개 팀이 경연에 참가해 대상에는 중국대단원팀의 만중일심, 금상은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Famile de juste팀의 La union, 그 외 8개 팀이 수상했다. 각국의 참가팀은 27일까지 IYF 전북센터에 집결하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페스티벌의 공식 일정이 시작되며 29일 페스티벌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의 주요 유명 명소와 새만금 일대를 방문할 계획이며 이후 세계문화축제 등 전주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교류를 통해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이 계획 되어 있다.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 전북도와 전주시가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세계인들에게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글로벌 마인드를 접함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화합을 위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근 기자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이야기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예기치 못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인생사를 그린 영화를 22일 상영한다. 작품은 배숙의 태이에게 문제가 생긴 상황으로 겪는 탈레마를 다룬 '24주',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 시민들의 이야기 '파리나비효과', 파리에서 펼쳐지는 여름 밤의 죄층우울 해프닝 '파리의 밤이 열리면'이다. 제17회 전주국제영화제 시네마페스트 상영작 '24주'는 출산을 앞두고 배숙 태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며 겪게 되는 코미디언 아스트리드의 특별한 시간을 담은 작품이다.

전주디지털영화관 내일 상영작 공개
영화는 앤 조라 베라치드 감독의 신작으로 1993년부터 임신중절을 합법화한 독일을 배경으로 법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이들의 윤리적 고민을 다루고 있다. 제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독일예술영화조합상을 수상했다. 또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 '파리나비효과'는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박문철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던 평범한 주부들이 투쟁의 중심에 서서 사드 배치

에 대한 의견을 펼치고, 대한민국 어느 땅에도 필요 없는 무기 사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의 시선을 따라간다. 이번만 아니라 정치문제를 거론하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 사회와 공동체의 문제에 부딪힌 사람들이 각성하고 변모하는 과정도 담아낸다. 관객실문조사 결과반영작 '파리의 밤이 열리면'은 연극 첫 무대를 앞둔 전날 밤,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무대에 세울 완충

이를 구하기 위해 파리 극장 운영주 루이지가 인턴 파에지와 함께 도심을 누비는 여정을 그렸다. /정해은 기자

군산 '뮤직포유' 초청음악회 24일 개최

군산 은과유원지에 위치한 카페 '뮤직포유(MUSICAU)'의 김석중 대표(사진)는 음악으로 대중과 문화예술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음악을 사랑하고 즐기려는 모든 이들에게 카페 공간을 내어주고, 틈틈이 공연도 갖는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그렇게 수년째 자신 공연을 이어온 지 올해로 어느덧 17회. 강 대표는 오는 24일 오후 7시30분 은과물빛다리광장에서 뮤직포유 초청음악회를 연다. 공연은 1부는 클래식으로, 2부는 회원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 진행한다.



소프라노 정자영의 '또 한 송이 나의 모란', 스키바테 티아나·피냐넬 이레산더 사사의 Shostakovich Waltz No.2 연주곡, 소프라노 김진희·정자영·정수희와 바리톤 김지욱의 목소리로 '축배의 노래'를 들려준다. 2부 아름다운 노래(FM)에서는 윤혜련의 축시 낭송 '잠미의 계절에 부처'를 시작으로 '민들레 흠뻑 되어', '그대 떠난 빈들에서 서서' 등의 곡으로 관객과 함께 한다. 강 대표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토요일음악회를 계속 개최할 생각이다. 이를 맞이하겠다고 선포 나서서 이가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라면서 "예술의전당 무대가 자신의 마지막 공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그곳에서 음악회 다룬 음악회를 열어 더 많은 관객과 호흡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남원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 성료

최근 남원시 운봉읍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에서 개최된 제3회 동편제마을 국악 거리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편제 마을 국악 거리축제는 이미 2월부터 4월까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전마을과 전촌마을에서 민요강습을 통해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했고 축제기간에는 길놀이, 난장마당, 국악열전, 한낮의 정자마루 콘서트, 소리열전과 같은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축제 개최 전부터 문의전화 및 관심이 쇄도해 기대감이 고조되었던 이번 축제는 국립국악원 원장이며 가야금 산조 김해숙 명인을 비롯해 대표적 동편제 판소리 가객 전인삼 전남대 교수, 젊은 층에 우리 음악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남상일·박애리 명창, 거문고 연주 유명주 명인, 창작연희꾼 김원민 등 국악계를 대표하는 명인명창이 한자리에 모여 관객들께 큰 즐거움과 흥을 선사했다. 그외에 소리꾼 김봉영, 권승희, 창작그룹 노니, 고래야, 거문고 앙상블 G.siret, 국악이카펠라 토리스, 창작국악그룹 불세출, 전통연희단 꼭두쇠, 국립민속국악원 공연은 앞으로 국악계를 이끌어갈 젊은 국악인들의 뛰어난 실력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축제의 파급력은 인숙선 명창과 정명화 첼리스트의 협연으로 장식했다. /정해은 기자